

로망스의 정치성: 「기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손 병 용

경남대학교

1. 로망스의 정치성

중세 기사도 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망스는 기사가 모험을 찾아서 말을 타고 길을 떠난다는 관례적인 패러다임을 따른다(Finlayson 1979, 55). 기사나 귀족 또는 왕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로망스는 사회적 관습과 이상을 가진 봉건 기사도를 묘사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Auerbach 131).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 주인공인 중세의 기사는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 양식이 로망스이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일부 작품들에서 로망스의 관례가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문학 양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Fuchs 5). 이것은 장르의 특이성들을 초월해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운문이나 산문 텍스트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로망스적인 요소가 된다. 로망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프라이(Northrop Frye)다. 그는 로망스를 중심적인 문학 양식들 중 하나로 묘사하면서 주인공의 행동능력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지, 더 못한지 또 같은지에 의해서 허구

적인 이야기를 분류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Frye 1957, 33). 그에 따르면 로망스는 월등하게 뛰어난 주인공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들 중 하나이다.

프라이는 또한 일종의 허구적 이야기에 대한 보편적인 모범인 미토스(mythos) 또는 전형으로서 로망스의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 프라이의 로망스 미토스는 일련의 모험들이 집합적으로 분류되는 편력(quest)을 포함한다. 즉 프라이에게 로망스는 사회적으로 뛰어난 계층의 주인공이 편력을 떠나는 것이다. 로망스에 나타나는 이러한 전형의 제시는 이상화와 소원성취로 특징된다. 즉 지배계급의 사회적 이상이 남녀주인공에게 투영됨에 따라서 로망스는 충성과 정절과 같은 규범적인 가치를 뒷받침하게 된다. 프라이는 로망스를 정치적으로 읽는 것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지만 이 문학양식이 지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의 계약을 “일종의 납치된 로망스(kidnapped romance)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우월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이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용된 로망스의 공식”(1976, 29-30)으로 설명하면서 “로망스의 대단히 분명한 특징은 [그 속에] 널리 스며들어있는 사회적 우월의식이다”(1976, 161)라고 주장한다. 프라이에게 있어 로망스는 “계급제에 따른 사회질서를 우리들에게 주로 제공하고 우리가 납치당한 로망스라고 불렀던 것에서 이러한 질서는 합리화된다. 따라서 기사도 로망스는 어떠한 중세의 귀족도 원탁의 기사들과 비슷하지 않았던 봉건제라는 사회구조를 합리화하는”(1976, 177)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망스는 정치·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로망스가 동시대의 사회적 이상들을 훼손하는 어떤 시간 또는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향수에 의해서 종종 특징지어진다고 프라이가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국적인 지명과 이름으로 가득한 과거라는 시간대와 장소들에 대한 향수어린 환기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망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한다. 향수의 렌즈를 통해서, 과거는 현재에 의미 있는 도전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당대의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로망스가 갖는 의미는 이상화된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 산업화에 따른 문화적 파괴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19세기 초 낭만주의의 시도에서 잘 드러났다. 따라서 고전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에 대한 로망스의 동경은 현실 사회의 이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로망스는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시간과 장소가 과거를 지향한다는 것은 당대의 현실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로망스 양식에 대한 프라이의 생각이 지닌 문제점들 중 일부는 그가 문학에 대한 정형화된 생각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망스에 대한 프라이의 고정된 시각은 우리가 로망스적인 요소와 함께 서사시와 성인열전 그리고 우화가 혼재되어 있는 혼종 텍스트(hybrid text)를 기술하려고 하거나 로망스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는 작품들을 기술하려고 할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즉 로망스를 하나의 정형화된 것으로 보는 프라이의 관점은 로망스적인 특성이 장르를 초월하여 발휘될 수 있는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프라이의 접근방식이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로망스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역사의 표식들을 지우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로망스를 자기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155-6). 제임슨은 로망스가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특정한 맥락에서 가지는 형태들을 설명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면서 개개의 이데올로기적인 특정한 맥락들에 대한 반영으로서 로망스의 역사를 상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는 로망스가 문화의 변화하는 관례에 어울리도록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기록하는 것 뿐 아니라 특정 시간과 공간속에서 파악되는 로망스의 기능을 추적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프라이에게는 로망스의 지속적인 관례와 본성에서 변형되고 일탈되어 버린 것이 제임슨에게는 양식이나 장르에 대한 연구의 요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망스는 기타 여러 가지 문학 형식들처럼 역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특정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암시적이며 자기 지시적이고 문학과 문화의 전통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그 정치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임슨의 로망스에 대한 견해는 헝(Geraldine Heng)에 의해 구체화 된다.

[로망스는] 수세기동안에 걸친 많은 생각들, 많은 손길들 그리고 많은 노력들이 모여진 작품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이야기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며 영향을 미친 문화적 동인들과 힘을 가진 집단적인 의지의 물질적 구체화로서 우리들에게 전해졌다.

[Romance] descends to us as the aggregated work of many minds,

many hands, and many efforts over the centuries: as the material concretion of the collective will of cultural agents and forces acting over time to preserve, develop, and transmit a story felt to be important. (Heng 3)

따라서 로망스의 관례에 집착해서 이 문학 양식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을 가지기보다 그것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전유되고 전복되는 지를 살피고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로망스적인 관례에 집착했을 때 빠져들 수 있는 그 문학적 양식에 대한 모호성은 “문화적인 환상의 도가니로서의 로망스의 역할”(Heng 3)에 의해 상쇄되고 독자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주는 텍스트를 넘어선 기존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를 담은 텍스트로서 다시 읽힐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텍스트들은 관례적인 로망스의 양식을 교묘히 전유하고 변용하여 그 양식에 대한 전복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야우스(Hans Robert Jauss)가 말한 “새로운 기대지평”(new horizon of expectation)을 독자들에게 열어 주게 될 것이다. 판에 박힌 로망스의 모험에 지쳐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토파즈 경 이야기」(*Tale of Sir Topaz*)의 여관주인(the Host)처럼 로망스의 관례에 익숙했었을 14세기 평민계층(commoner) 청중들에게 초서가 로망스의 양식을 전유하고 전복하여 전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암울한 현실을 잊게 하고 즐거움을 주려는 의도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가인 초서(Geoffrey Chaucer)가 처해있었던 14세기 영국의 정치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그가 로망스라는 양식을 전유하여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독자들에게 은연중 전하려고 했던 자신의 정치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¹

¹ 여기서 말하는 정치성(political nature)은 농민폭동(1381)이후 정치적 현실과 거리를 두고 『캔터베리 이야기』를 작성하면서 느꼈을 초서의 정치적인 견해에 초점을 둔다. 「기사 이야기」의 정치적 요소에 대해서 릭비(Stephen H. Rigby)는 이 이야기가 로마의 예지디오(Giles of Rome)가 쓴 『군주 통치론』(*De Regimine Principum*)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와디아크(Walter Wadiak)은 초서가 통속 모험 이야기를 거부하면서 여느 작가들과 차별되는 위상을 얻고자하는 정치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그루딘((Michaela Paasche Grudin)은 테세우스의 연설에 주목하며 이 이야기의 모든 사건은 그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난다고 주장한다.

2. 초서의 정치적 맥락

초서가 살았던 1343년부터 1400년까지의 영국은 백년전쟁(1337-1453년)의 지속, 페스트의 창궐(1348-1349년), 훌륭한 의회(Good Parliament, 1373년), 농민 폭동(1381년) 그리고 헨리 볼빙브로크(Henry Bolingbroke)의 왕위 찬탈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은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영국 시민들은 의회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했고 중산 계층은 의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으며 상인들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발걸음을 해외로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 초서는 귀족부인 엘리자베스 드 버리(Elizabeth de Burgh)의 시동을 시작으로 귀족가문과 왕실에서 세월을 보냈다. 백년전쟁이 벌어질 때에는 엘리자베스 부인의 남편인 앤트워프의 라이오넬(Lionel of Antwerp)과 함께 참전하지만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 에드워드 3세가 16파운드의 몸값을 주고 석방된 후 유럽 각국을 여행하다가 런던항의 세관장, 켄트 주의 치안판사와 국회의원 그리고 왕실 토목공사 감독관을 역임한다(Brewer 102-103). 귀족과 왕실을 위해 일한 초서의 이러한 이력은 그를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고 그가 작품을 집필할 때에 영향을 미쳤음 또한 그러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의 정치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로망스의 서술자로서 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로망스라는 문학양식은 왕과 귀족 그리고 기사를 주인공으로 하여 사회의 이상을 옹호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서술하는 작가와 독자 또는 청자는 초서와 같은 평민 계층이다. 로망스 작품 속 주인공과 그 작품의 소비자인 평민계층 이상의 독자와 서술자들의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간극이 그들의 작품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서술자 초서가 자신의 작품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² 로망스의 작가들은 기사는 물론 귀족 계층이 아니라 주로 교회의 낮은 직책을 담당하거나 궁정의 업무를 보면서 라틴어 텍스트를 읽고 모방한 서기들이었다(Fuchs 40).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궁정

² 파멜라 킹(Pamela M. King)은 초서 당대의 로망스 독자층을 역사물과 프랑스로 쓰인 로망스를 선호했던 조신들(courtiers)과 초서가 쓴 로망스를 즐겨 읽은 지적 엘리트계층(intellectual elites)으로 구분한다(15).

의 영주와 귀부인들 그리고 기사들의 이상화된 모습을 재현했다. 기사와 귀족 계층이 아닌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상상한 바를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재현하다보니 로망스에는 서기들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었고 이는 현실과 로망스 사이의 동질감이 결여된 아이러니를 만들게 되었다.

작가 초서 또한 평민계층 출신으로 고귀한 혈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1389년 공직에서 물러나서 죽을 때까지 『캔터베리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시골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왕이 폐위되고 그의 동료가 자신이 등원했던 의회에 의해 참수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한때 동정적인 비판과 견제를 하였던 담론이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적극적으로 된 이유를 암시한다(Turner 151). 좀 더 자세히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록을 고려하면 그러한 상황이 초서의 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진다. 14세기의 영국사회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무능했던 군주 에드워드 2세에 이어 왕좌에 오른 에드워드 3세는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새로운 대관서약을 해야만 했다. 이 서약의 중요성은 왕이 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은 물론 왕을 입법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Turner 151 재인용). 에드워드 2세 통치하에서 랭크스터의 토마스(Thomas of Lancaster)는 왕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회를 소집하였고(Dodd 177-179), 그 세기의 마지막 25년은 왕의 심복들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안을 만든 “훌륭한 의회”(Good Parliament)를 목격했으며 이후 놀랍고도 무자비한 의회들을 목격했다. 의회는 왕의 가족과 정부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권력자의 무대가 되었고 반역자들과 왕과의 관계에서 양측에 가해지는 폭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Turner 151 재인용). 13세기의 권력자들은 왕에 대해 전쟁을 벌이는 것을 주저하였기에 그들의 정치적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결국 왕은 고위층 반란자들을 엄하게 벌하지 않았지만 에드워드 2세는 이와 달리 귀족 반란자들을 처형했다. 결국 그는 그의 조부(헨리 3세)와 증조부(존 왕)보다 더 비참한 운명으로 폐위되어 처형당했다. 그 세기 말엽에는 다시 반대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를 자행한 왕인 리처드 2세를 만나게 된다.³ 이후 반란은 더 심해졌고 왕과 반란자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은 더

³ 심지어 자신의 삼촌인 글로체스터의 공작, 아른델의 백작 그리고 리처드 자신도 에드워드 2세와 같은 운명을 겪었다(Turner 151).

해졌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공연한 반란은 13세기에 어느 정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고 처벌되지 않았지만 14세기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에드워드 3세 통치 기간에 통과된 반역죄에 대한 법령(the Statute of Treason)은 왕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역으로 규정했다(Turner 151 재인용). 법률은 반역에 대한 정의를 확대시켰다(Green 213, 227). 예를 들어서 1397년 왕실에 대한 개혁을 청원했던 서기는 반역을 한 것으로 판결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왕의 지인들에 반대하는 말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반역이었다(Turner 152 재인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들에게 말과 글은 점점 더 반역의 요인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은 반역의 도구였고 글쓰기 자체는 반역으로 보였다. 랭글랜드(William Langland)는 1381년의 반란에서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농부 피어스』를 부분적으로 다시 써야했다(Crane 1992, 211-213). 따라서 이 시대의 시들은 누구도 권력에 대해 사실을 말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멍청한 것이며 위험하다고 여겨졌다.⁴

이것이 제프리 초서가 자신의 작품을 내놓았던 시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초서의 견해는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실재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없었을 것이고 초서의 신중한 언급은 이러한 배경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나타난다(Wallace 85). 「기사 이야기」에서 팔라몬(Palamon)과 아르시테(Arcite)가 테세우스(Theseus)에 대항하지 않고 그의 뜻을 따른다는 초서의 묘사 또한 그가 살았던 14세기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상당히 근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초서의 텍스트들은 적극적인 정치적 저항에 대해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고 논쟁적인 부분이 덜하다. 이는 변화하는 정치풍토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텍스트들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좀체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로망스의 관계적인 양식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대라는 시간과 아테네라는 장소와 같은 현재로부터 먼 시간과 공간속에 「기사 이야기」를 위치시킴으로써 당대의

⁴ 초서 또한 이러한 검열의 세상과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폭군치하에 사는 것의 공포를 『명성의 전당』(House of Fame)에 나타내며 말할 수 있는 것에 따른 불안을 묘사한다(Turner 152 재인용).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굴절시키고 치환시킨다. 로망스의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대 아테네를 배경으로 권위 있는 왕 테세우스를 배치시키고 펼치는 초서의 정치적 목소리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즉 초서는 자신의 로망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명백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정치성을 드러내면서 당시의 정치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초서는 에드워드3세와 리처드2세를 통해 왕의 결정에 따른 왕국의 성쇠를 옆에서 몸소 지켜본 사람이다. 초서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테세우스라는 왕과 의회의 결정 그리고 신의 섭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팔라몬과 아르시테 그리고 에밀리(Emilye)를 「기사 이야기」에 배치하여 암시적인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초서는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로망스의 관례를 활용함은 물론 테세우스를 백성들과 여성들에게 자비로운 인물로 소개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들의 임의적인 결정과 필연적인 운명론을 앞세워 왕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이 이야기를 로망스의 해피엔딩으로 이끌려고 한다. 하지만 로망스의 모험을 통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청중과 독자들에게 있어 이 이야기는 어떠한 모험의 이야기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팔라몬과 에밀리의 결혼이 서술자인 기사의 말처럼 과연 행복한 결말인지에 대해 곱씹어보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초서는 자신의 청중과 독자들에게 테세우스는 과연 어떤 왕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가를 들춰보게 한다. 왕실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고 의회에서 정치의 속성을 익혔을 초서는 현장에서 한발 물러나 갈등만이 양산되었을 정치적 현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듯이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3. 「기사 이야기」에 투영된 초서의 정치성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의 첫 번째 화자인 기사에 의해 전해지는 「기사 이야기」는 로망스적인 특성이 가득한 작품으로 이해되어 왔다. 화자인 기사는 프락이 언급한 로망스의 주인공과 같이 충성스럽고 예의바르며 용감한 완벽한 기사로 그려진다. 고상한 신분의 두 기사 팔라몬과 아르시테가 아름다운 여인 에밀리와 사랑에 빠진다는 기본적인 로망스의 구조를 “완벽하고 고상한 신분의 기

사”(parfit gentil knyght;I 72)가 청중인 순례자들에게 전한다.⁵ 청중들은 기사의 이야기가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는 고상한 이야기였다”(That he ne seyde it was a noble storie, / And worthy for to drawn to memorie; I 3111-3112)라고 반응한다. 특히 그 칭찬은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했다”(And namely the gentils everichon;I 3113)라는 평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로망스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독자의 뇌리에 각인시킨다.

하지만 「기사 이야기」의 로망스적인 특성을 두고서 핀레이슨은 로망스를 명확히 정의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기존의 비평가들이 예술적인 기법과 비전에 대해 「기사 이야기」가 어떤 결과를 가지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이야기를 로망스라고 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서가 선택한 형식과 포괄적인 관례를 좀 더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Finlayson 1992, 127-8). 웨터(Kevin Sean Whetter)는 숙명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자신의 운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로망스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112). 쿠퍼(Helen cooper) 역시 초서의 「기사 이야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텍스트를 전형적인 로망스로 보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한 가지 이유라고 주장한다(372-4).

로망스의 관례로 한껏 치장이 되어 있지만 그 장르적 정체가 묘연한 이 이야기에서 독자가 처음 마주치는 것은 팔라몬과 아르시테와 같은 이상적인 기사도 5월의 아름다움을 닮은 에밀리도 아닌 “아테네의 주인이자 통치자인”(Of Atthenes he was lord and governour; I 861) 테세우스이다.⁶ 그는 여인들과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자비를 보여주지만 팔라몬과 아르시테에게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감금한다. 테세우스는 승리를 거두고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크레온(Creon)의 악행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들을 마주친다. 그 여인들의 청하는 도움을 받아

⁵ 「기사 이야기」의 원문은 *The Riverside Chaucer*, gen, ed., Larry Benson (Boston: Houghton Mifflin, 1987)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말 번역은 이동일, 이동춘, 「켄터베리 이야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⁶ 부르어(Derek Brewer)는 테세우스가 테베(Thebes)를 침략해 각종악행을 저지른 크레온(Creon)을 무찌르기 위해 출전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마르스와 미노타우로스가 잉글랜드의 사자와 프랑스의 백합(여전히 왕실의 문장에 있다)으로 바뀌고 당신은 테세우스는 에드워드 3세를 상기시킨다(114)고 주장한다. 테세우스의 아마존 정복이 에드워드 3세의 영토 확장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읽힌다는 점도 이 둘에 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들이는 테세우스는 크레온과의 일전이라는 뜻밖의 모험과 마주치며 여성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로망스의 주인공이 갖는 선을 실행한다. 크레온의 악행으로부터 테베를 구한 테세우스는 여성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기사도의 선을 수행하는 정의로운 모습으로 독자와 청중들에게 각인된다.⁷

한편 테세우스는 자신의 권위적인 연설과 함께 로망스의 관례에 영향을 미친다.⁸ 이 이야기의 제목을 「기사 이야기」에서 「테세우스의 이야기」로 바뀌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그는 이 이야기를 주도해 나간다. 팔라몬과 테세우스를 사로잡은 이후 아테네에 전해지는 테세우스의 연설은 묘사적이라기보다는 규정적이고 권위적이며 청중들에게 어떤지가 아닌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Grudin 85). 테세우스와 같은 통치자에게 있어 연설은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최고의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하지만 테세우스의 연설은 정치적인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왕국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두고서 엷인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한다. 테세우스는 에밀리에 대한 눈먼 사랑 때문에 숲속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팔라몬과 아르시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

따라서 나의 제안은 이렇다.

너희들은 각자의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정해진 바와 같이 그리고 그 방법을 들어 보아라;

자 내가 너희들의 운명에 준비한 것을 들어보아라.

결론적으로 내 뜻은 이 것이다.

알가알부하지 말고

이것이 좋으면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And forthy I yow putte in this degree,

That ech of yow shal have his destyne

As hym is shape, and herkneth in what wyse;

Lo, heere youre ende of that I shal devyse.

⁷ 이러한 테세우스의 모습을 두고 핀레이스(John Finlayson)은 테세우스가 자신의 권력을 정립하고 그의 기사도적인 탁월함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992, 131).

⁸ 구루딘(Michaela Paasche Grudin) 은 테세우스의 권위적인 담론을 지적하면서 그의 연설은 묘사적이라기보다는 규정적이고 권위적이며 청자는 침묵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사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모든 것을 그가 결정한다고 주장한다(85-86).

My wyl is this, for plat conclusioun,
 Withouten any replicacioun --
 If that you liketh, take it for the beste: (I 1841-1847)

에밀리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시합에 대한 테세우스의 제안은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싸움이 자신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사적인 다툼에 왕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즉 숲에서 벌어지는 무법의 싸움에서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결론이 나는 불상사를 막고 규칙에 따라 벌어지는 시합의 승자와 처제인 에밀리를 결혼시킴으로써 적국을 우방으로 만들 수 있는 묘책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시합은 전적으로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으로서 그 어떠한 비난의 화살도 테세우스와 자신의 왕국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테세우스는 로망스의 주인공인 기사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펼치는 목숨을 건 모험의 관례를 정치적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1년 후 자신들의 군사들을 대동한 팔라몬과 아르시테를 기다리며 “테세우스왕은 마치 신이 용상에 있는 것처럼 창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Duc Theseus was at a wyndow set, Arrayed right as he were a god in trone; I 2528-2529). 이러한 테세우스의 명령과 연설 그리고 행동은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동인이 되며 왕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역량의 미덕을 보여준다. 초서는 의회와 귀족 그리고 왕족의 반목과 음모로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정치적 현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그들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듯하다. 모름지기 왕의 정치적 역량은 이해관계자 모두의 동의를 가져오기는 힘들겠지만 특정인을 철천지원수로 두지 말 것을 귀뜸하듯이 말이다.

이러한 테세우스의 영향력 하에 놓인 인물은 에밀리와 팔라몬 그리고 아르시테이다. 이들은 테세우스의 이미지와는 상반된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들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수동적인 특성을 가지며 테세우스의 명령과 제안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밀리는 모든 것에 순응하고 있는 반면 팔라몬과 아르시테는 테세우스가 아닌 신의 섭리를 원망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세 사람에게 벌어지는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서사 구조는 “강제결혼이라는 더 큰 패턴의 맥락”(Sanders 88)으로 이야기된다. “아름답고 강인한 여왕”(The faire, hardy queene; I 882)인 히폴리타(Ypolita)는 아마존에서 벌어진 테세우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테세우스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그녀와 함께 아테네로 오게 된 여동생 에밀리는 전형적인 로망스의 여주인공처럼 5월의 정원을 거닌다. 그러나 그녀 또한 전쟁의 전리품과 같이 남자들이 싸워서 얻게 되는 대상으로서 이 이야기에 제시된다. 전쟁의 전리품처럼 일면식도 없는 기사들 손에 이끌리게 되는 여성들은 기사도 로망스에서 흔한 유형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은 서로간의 사랑이라는 경험이 뒤따르는 경우에 유효해진다(Sanders 89). 이와는 반대로 「기사 이야기」에서 에밀리는 그녀에 대한 기사들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구애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호감을 갖지 못한다.

순결의 여신인 당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처녀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을요,
 제가 연인이나 아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Chaste goddess, wel wostow that I
 Desire to ben a mayden al my lyf,
 Ne nevere wol I be no love ne wyf. (I 2304-2306)

에밀리는 다이애나 신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바램을 드러낸다. 이렇게 양식화된 기도는 에밀리를 고결하고 순결한 처녀로 위치시키지만 전쟁과 사랑이라는 남성적인 로망스의 구조 내에서 또 다시 대상화된 여성의 곤경을 보여 준다(Sanders 89). 그녀를 얻기 위한 목숨을 건 시합을 제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녀도 그녀는 방관자일 뿐이며 그녀의 운명은 테세우스에 의해 결정된다. 팔라몬과 아르시테는 테세우스에 의해 평생을 감옥에 갇혀 보내게 되었지만 그 원망의 화살은 “잔인한 신들”(cruel goddess; I 1303)을 향하고 있다. 이 두 기사의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은 감옥에서 풀려난 아르시테가 테세우스를 상대로 복수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팔라몬이 말하며 부러워하지만 아르시테는 변장을 하고 테세우스의 궁정에 잠입하여 시종장으로서까지 승진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왕을 상대로 한 반역의 행위가 엄벌에 처해졌던 초서 당대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로망스적인 관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아르시테가 테세우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않은 것도 팔라몬과 아르

시테가 숲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것도 바로 로망스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봉건 기사도의 이상을 칭송하는 로망스에서 군주와의 충성과 여인에 대한 충절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가웨인 경과 녹색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에서 가웨인이 겪은 기사도의 이상에 따른 주요 딜레마였다. 「기사 이야기」에서도 에밀리에 대한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사랑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의 기사도를 깨는 역할을 한다(Finlayson 134). 눈이 가려진 큐피드가 쏜 화살에 맞아 에밀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 고귀한 귀족출신의 팔라몬과 아르시테는 기사도 로망스의 전형으로 묘사되지만 이 두 기사들이 마주치게 되는 난관은 로망스의 편력을 이루는 모험과는 다른 것이 된다. 그것은 테세우스가 제안하는 조건에서부터 시작한다.

내 너희의 침범을 완전히 용서하겠다,
여기 무릎 꿇은 왕비의 요청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에밀리의 간청에 따라
그리고 너희 둘은 즉시 나에게 맹세를 하거라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겠노라고,
언제나 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친구가 되어라.

I yow foryeve al hoolly this trespaas,
At requeste of the queene, that kneleth heere,
And eek of Emelye, my suster deere.
And ye shul bothe anon unto me swere
That nevere mo ye shal my contree dere,
Ne make werre upon me nyght ne day,
But been my freendes in all that ye may. (I 1818-1824)

이와 같은 테세우스의 용서의 조건에 따라 제안된 시합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다. 어리고 미숙한 팔라몬과 아르시테가 자신들을 옥에 가둔 테세우스를 원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모험다운 모험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에밀리를 얻기 위해 서로를 상대로 한 시합에서 이겨야하는 상황에 따라 팔라몬과 아르시테가 진정한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이 두 기사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모험 또는 편력의 기회를 갖기 보다는 테세우스의 명령과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로망스적 관례에 따라 우선시된다. 테세우스의 결정은 테베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팔라몬과 아르시테의 복수심에서 자신의 왕국 아테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테세우스는 에밀리를 얻기 위한 목숨을 건 시합을 제안함으로써 그 시합의 승리자를 에밀리와 결혼시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패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복수의 기회마저 박탈하려는 정치적인 계산을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Who may been a fool but if he love?; I 1799)라는 말속에 숨기고 있다.

「기사 이야기」는 기사의 모험과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로망스의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왕과 왕국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다. 테세우스 자신이 제안하고 결정한 시합에 의해서 아르시테가 불의의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슬퍼하자 그는 그것이 분노로 바뀌는 것을 막고자 생로병사와 같은 자연의 법칙과 신(Jupiter)의 섭리에 따라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긋는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자 근원이신 주피터신이다.
 모든 것을 다시 근원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분이
 사실 주피터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어떠한 생명체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
 어떠한 신분의 사람도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내 생각에 지혜로운 것은
 필연적으로 이뤄지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에 순응하고
 즉 우리 모두가 예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반대하는 것은 헛된 것이며
 만물을 지배하는 신에 대한 반항이다.

9 브루크너(Bruckner)는 프랑스 로망스에서 주인공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모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모험과 정체성 사이의 이러한 연결이 영국 테스트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23-26).

"What maketh this but Juppiter, the kyng,
 That is prince and cause of alle thyng,
 Converynge al unto his propre welle
 From which it is dirryved, sooth to telle?
 And heer-agayns no creature on lyve,
 Of no degree, availleth for to stryve.
 "Thanne is it wysdom, as it thynketh me,
 To maken vertu of necessitee,
 And take it weel that we may nat eschue,
 And namely that to us alle is due.
 And whoso gruccheth ought, he dooth folye,
 And rebel is to hym that al may gye. (I 3035-3046)

그는 팔라몬과 에밀리의 결혼을 주선하게 되는데 이 또한 팔라몬의 고국인 테베인들의 완전한 충성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다. 아테네의 안정을 위한 의회의 결정을 테세우스가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왕과 의회가 대립을 각을 세웠던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비교된다. 초서가 바랐던 정치는 바로 의회와 국왕의 이러한 조화로운 공조였을 것이다.

이후 아테네에서 의회가 있었다
 몇몇 사안을 논하기 위해서
 논의 되었던 그 사안들 중에
 특정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하고
 테베인들의 완전한 행복을 받는 것이 있었다.
 고귀한 테세우스 왕은 즉시
 훌륭한 팔라몬을 불러오도록 명령했다
 그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Thanne semed me ther was a parlement
 At Atthenes, upon certein pointz and caas;
 Among the whiche pointz yspoken was,
 To have with certein contrees alliaunce,
 And have fully of Thebans obeisaunce.
 For which this noble Theseus anon

Leet senden after gentil Palamon,
Unwist of hym what was the cause and why, (I 2970-2977)

이후 테세우스는 팔라몬의 동의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고 이 둘의 결혼을 선포한다. 에밀리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라몬을 남편으로 맞이한다. 아르시테와 팔라몬은 테세우스의 명령에 따라 시합을 벌이지만 한 명은 신의 뜻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한 명은 사촌의 죽음에 따른 트라우마를 겪는다. 당사자의 동의는 생략된 채 거행된 팔라몬과 에밀리의 결혼식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화자는 팔라몬과 에밀리가 순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마친다.

이후 팔라몬의 삶은 행복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에밀리는 모든 정성을 다해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헌신했다,
그 둘 사이에는 질투나 짜증과 같은
어떠한 말도 없었다.

For now is Palamon in alle wele,
Lyvyng in blisse, in richesse, and in heele,
And Emelye hym loveth so tendrely,
And he hire serveth so gentilly,
That nevere was ther no word hem bitwene
Of jalousie or any oother teene. (I 3101-3106)

이 둘의 결혼은 의회의 동의와 권고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벌어진 것이고 아테네와 테베 양국은 사돈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 통해 테세우스는 또 다른 우방국을 갖게 된다. 테세우스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벌어진 아르시테의 죽음에 따른 주변의 비난을 왕국의 법,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운명의 수레를 언급하며 비켜간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원인이 되어 벌어진 비극을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며 일반화시킨다. 그에게는 이러한 비난을 비켜갈 수 있는 언변과 정치력이 있는 것이다. 초서는 팔라몬과 아르시테 그리고 에밀리와 같은 로망스의 주인공들을

그 문학 양식의 관례에 따른 희생자로 남겨두고 그 방점을 테세우스에게 향하도록 한다.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초서는 당대의 정치현실에서 한발 물러나 왕과 귀족 그리고 의회의 갈등에 대해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왕실의 총애를 받았던 초서는 원로의 입장에서 그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의회와 왕실의 조화 그리고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따르며 사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초서에게 있어 왕의 본분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가 「기사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정치적 메시지이다.

4. 결론

격동의 14세기 영국을 살았던 초서에게 있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자신의 작품에 가감 없이 담아낸다는 것은 실로 막대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작가로서 초서는 왕실을 위해 일하면서 유능한 왕과 무능한 왕의 결정에 따른 나라의 성쇠와 의회와 왕실 사이의 갈등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로망스라는 문학양식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고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듯한 묘사를 펼친다. 그러나 그는 로망스의 기사들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험과 이상적인 사랑이라는 로망스적인 관례를 교묘히 변형시킨다. 초서는 즐거움을 주는 문학양식인 로망스의 주요 독자층인 평민계층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였을 관례적인 모험을 전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로망스적인 관례를 전용하여 당대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독자들에게 은밀히 전하고 있다.

팔라몬과 아르시테 그리고 에밀리 이 세 명의 운명을 결정하고 싸움을 판결하며 조정하는 사람은 테세우스이며 아르시테가 죽은 후 팔라몬과 에밀리의 결혼을 제안하여 아테네와 테베사이의 결속을 강화시킨 것도 테세우스이다. 이를 통해 그의 관심사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와 공중질서 그리고 왕국의 안녕임이 명백해진다. 「기사 이야기」의 결말은 팔라몬과 에밀리의 행복한 결혼생활이라는 로망스의 관례적인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나 초서는 성급하게 그 결말을 맺음으로서 아르시테와 팔라몬 그리고 에밀리를 로망스적인 관례의 희생자로 만들고

테세우스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게 한다. 초서는 테세우스를 통해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내밀하게 독자에게 전한다. 초서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이며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테세우스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테세우스가 의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모습은 14세기 영국사에서 지속되었던 왕실과 의회 그리고 귀족계층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초서의 해결책일 것이다. 초서는 즐거움을 위해 당대의 독자들이 읽었을 로망스라는 문학양식을 이용하여 겉은 달콤하고 속은 쓰지만 교훈이 되는 당의정(sugar coated pill)을 선사하고 있다. 초서는 로망스의 달콤함으로 포장되어 은폐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주제어 | 제프리 초서, 『캔터베리 이야기』, 「기사 이야기」, 로망스의 정치성

인용문헌

- 이동일. 이동춘 역, 『캔터베리 이야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 Auerbach, Eri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 Willard Trask. Princeton: Princeton UP, 2003
- Brewer, Derek. *English Gothic Literature*. London: Macmillan, 1983.
- Bruckner, Matilda. *Shaping Romance: Interpretation, Truth, and Closure in Twelfth-Century French Fictions*. Philadelphia, MA. Pennsylvania UP, 1993.
- Chaucer, Geoffrey. *The Canterbury Tales*. Larry D. Benson, Ed. *The Riverside Chaucer*.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87.
- Cooper, Helen. *The English Romance in Time: Transforming Motifs from Geoffrey of Monmouth to the Death of Shakespeare*. Oxford: Oxford UP, 2004.
- Crane, Susan. "The Writing Lesson of 1381." *Chaucer's England: Literature in Historical Context*, Ed. B. Hanawalt, Minneapolis: Minnesota UP. 1992: 201-222
- .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Princeton: Princeton UP, 1994.

- Finlayson, John. "The Expectation of Romance i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Genre*, 12 (1979): 1-24.
- , "Definitions of Middle English Romances", *Chaucer Review* 15.1 (1980): 44-62.
- . "*The Knight's Tale*: The Dialogue of Romance, Epic, and philosophy," *Chaucer Review* 33 (1992): 126-49.
- Frye, Northrop.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Princeton UP, 1957.
- , *The Secular Scripture: A Study of the Structure of Romance*. Cambridge: Harvard UP, 1976.
- Fuchs, Babara. *Romance*. New York: Routledge, 2004.
- Green, R. F. *A Crisis of Truth: Literature and Law in Ricardian England*: Philadelphia: Pennsylvania UP, 1999.
- Grudin, M. Paasche. "The Knight's Tale and the Discourse of Authority." *Chaucer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Columbia, SC: South Carolina U.P. 1996: 84-96
- Heng, Geraldine. *Empire of Magic: Medieval Romance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Fantasy*. New York: Columbia UP, 2003.
- Jameson, Fredric. "Magical Narratives: Romance as Genre." *New Literary History*, 7 (1975-76): 153-63.
- King, Pamela. *Medieval Literature 1300-1500*: Edinburgh: Edinburgh UP, 2011.
- Rigby, SIH. *Wisdom and Chivalry: Chaucer's Knight's Tale and Medieval Political Theory*. Boston: Brill, 2009.
- Saunders, Corine. "Chaucer's Romances." *A Companion to Romance from Classical to Contemporary*. Ed. Corine Saunders, Malden, MA: Blackwell, 2007. 85-103.
- Turner, Marion. "Writing Revolution." *A Companion to British Literature*. Ed. Robert DeMaria. Malden, MA: Blackwell. 2014. 146-160.
- Wadiak, Walter. "Chaucer's *Knight's Tale* and the Politics if Distinction," *Philological Quarterly* 89. 2/3 (2010): 159-184.
- Wallace, David. *Chaucerian Polity: Absolutist Lineages and Associational Forms in England and Italy*.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7
- Whetter. K. S. *Understanding Genre and Medieval Romance*. Hampshire: Ashgate, 2008.

ABSTRACT

The Political Nature of Romance: Focusing on *Knight's Tale***Byung-Yong Son**

This study aims to grasp the meaning of political nature of the medieval romance. The romance has a paradigm that the knight rides out to seek an adventure. Northrop Frye says that romance has superior characters and an archetype that support the contemporary social structure. Often, romance provides its reader or audience with the nostalgia for the past to provoke a meaningful challenge to the present. Frederic Jameson has an interest on what for Frye is a deformation or deviation from the archetype of romance. He thinks that romance has a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ntext, and reflects a particular ideological context. Geraldine Heng recognizes romance as “the name of desiring narrational modality that coalesces from the extant cultural matrix.” She stresses on an expansive meaning of romance as “the material concretion of the collective will of cultural agents and forces.”

From these perspectives, I try to focus on *Knight Tale* and examine the political context of Geoffrey Chaucer, the author of the Tale. He was a son of rich merchant and served as an bureaucrat, courtier and diplomat. He went through a period of turbulence in England in 14th century. Treacherous behavior was punished severly. Writing and even talking against the royal family were punished. In this context, Chaucer was very cautious to reveal his own political message. Therefore, to lessen the burden and avoid a political controversy, he appropriated and transformed the convention of romance.

The adventure that romance knight seeks to carry out and achieve self-examination is not given to Palamon and Arcite. The idealized love of romance between knight and his lady has no interactive relationship. Instead, Theseus, who reminds Edward III according to Derek Brewer, is represented as merciful and powerful king. He shows mercy to begging ladies and defeats Old Creon. However, he imprison Palamon and Arcite, and never intends to set them free. After Palamon and Arcite come out of prison and fight in the forest, he makes a suggestion of tournament for winner to get Emilye, but his suggestion causes a great misfortune, Arcite's death. Theseus turns the criticism

toward the Providence of God and arranges the marriage between Palamon and Emilye. He first considers the allegiance with other countries and security of his kingdom, and orders them to marry.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s, Palamon and Emilye get married. The narrator says that they lived in bliss, in richness and in health. However, this happy ending is an only conventional romance ending. By using and transforming convention of the mode, Chaucer makes Palamon, Arcite, and Emilye victims of romance. Rather, he stresses on Theseus and provides a model of king. Chaucer confidential sends his political message that king should use his political ability to tide over a difficult situation and value the opinion of Parliament.

Key Words | Geoffrey Chaucer, *Canterbury Tales*, *Knight's Tale*, Political Nature of Romance